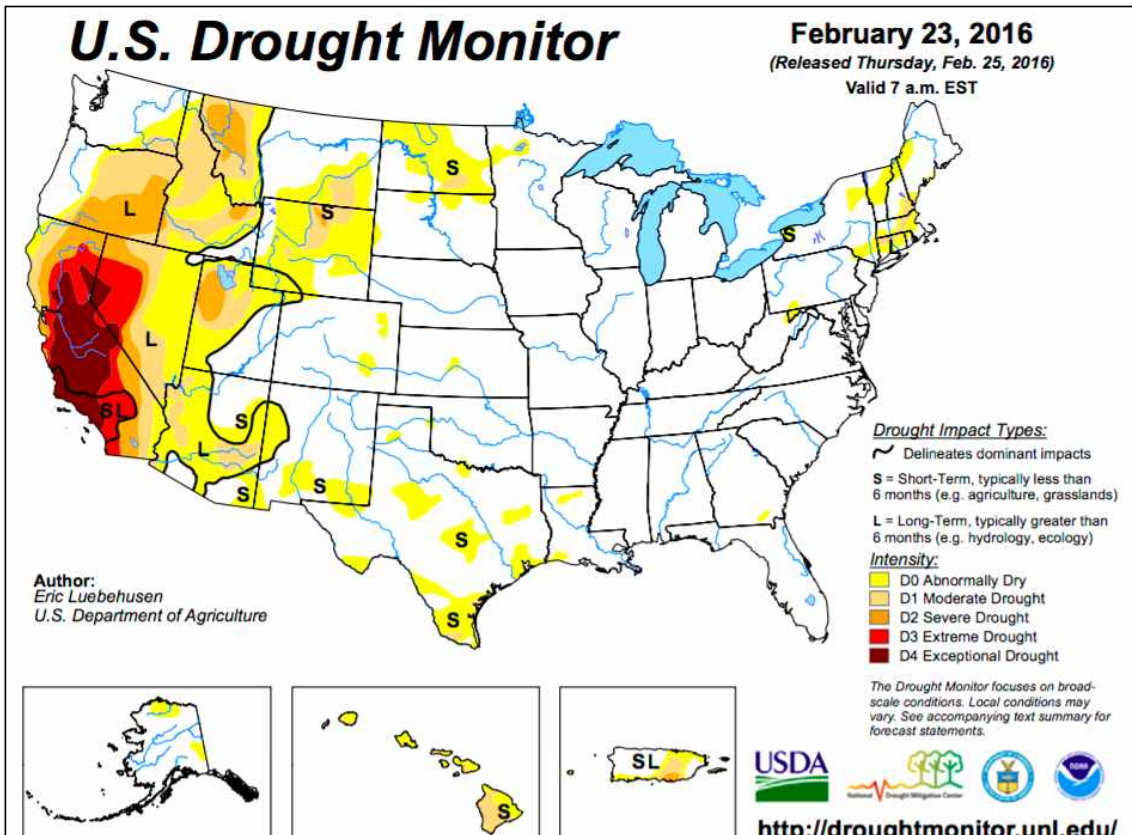




3월 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9)

□ 미국 기후 현황(2/21~2/27)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북부 대평원 일대와 중서부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10°F 이상 높았다. 미네소타와 다코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2월 27일 관측 이래 2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만 아주 조금 비가 내렸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이들 주에서는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와 로키산맥 북부 등에서도 많지 않은 양의 비나 눈이 내렸고, 로키 산맥 남부 일대에서는 눈이 쌓였다. 로키 산맥 남부에 눈을 뿌렸던 구름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중서부 저지대에 바람을 동반한 눈보라와 많은 양의 비를 뿌렸다. 2월 23일과 23일 이틀 동안 남동부 일대와 대서양 연안 중부 일대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 그 밖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남부 평원 일대에서는 2달 넘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2/22~2/28)

대체적으로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았으며, 특히 대평원 북부 일대에서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 최소 9°F 이상 기온이 높았다. 플로리다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았다. 서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이 많았으며, 동부 전역에는 비가 조금 내렸다. 루이지애나 남부와 노스캐롤라이나 북부와 서부에서는 3~6인치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2/21~2/27)

■ 유럽: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전역에서 10~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영국에서는 5mm 미만의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독일과 폴란드 등에서는 토양 수분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유채와 밀이 휴면기를 끝내고 성장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5~3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일대에서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으로 봄철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헝가리의 Damube 강이 위치한 남동부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8°C 이상 높고,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까지 오르기도 했다.

■ 구소련(서부): 이례적인 고온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부에서는 겨울작물 생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북부, 러시아 중부 등에서는 10~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2~13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린 지역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토양 수분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은 평년에 비해 최소 10°C 이상 높고, 낮 최고기온은 3~8°C 내외의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북해 연안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 초반까지 오르기도 했다. Volga와 러시아 중부 지구 일대에서만 눈이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다. Krasnodar Krai 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생육 상황이 매우 빠른 편이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작물의 생육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이후 한두 차례 추위가 찾아올 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작물의 동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호주: 동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덥고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면화의 생육 상황은 좋은 편이다. 더위와 맑은 날씨는 여름작물의 조기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수확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날씨는 비교적 파종 시기가 늦은 늦여름 작물의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퀸즐랜드 남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고, 뉴사우스 웨일즈 북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5°C 정도 높은 상황이다. 낮 최고기온은 30°C 초반에서 40°C 초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 아르헨티나: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의 비가 내렸다. 중부와 북부 일대의 대규모 곡창지역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린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는 25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다. Parana 강 일대와 Salta 동부 및 Chaco, Formosa 등에서는 50mm 내외의 비가 내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 중부 일대의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은 평년에 비해 2~3°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30°C 초중반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주 후반부로 가면서 차가운 저기압의 영향으로 더위가 한풀 꺾였다. La Pampa, Buenos Aires 등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10°C 미만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보다 북부 지역에서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4°C 정도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C까지 오르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2월 25일 기준 해바라기의 수확률은 31%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4%p 앞선 수치이다.

■ 브라질: 북동부 내륙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Mato Grosso do Sul, Sao Paulo, Rio Grande do Sul 북부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일부 분지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대두와 옥수수의 수확률은 각각 50%,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 전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Rio Grande do Sul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올랐다. 중부와 서부 일대에서는 10~40mm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들 지역에서도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올랐다. 북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지난 3주간 평년에 비해 따듯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북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4°C 정도 높은 날이 많았고, 강수량은 10mm 미만으로 적었다.